

# 전북교육청, 민·관 교육협력 강화

### ‘교육거버넌스위’ 구성... 교육문제 해결 창구 역할 위원 총 40명,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범위 확대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민·관 교육협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지난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사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정책 수립의 민주·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발의·제정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거버넌스는 도교육청과 전북도청, 도의회,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그 밖에 도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거버넌스

스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경험과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학생·학부모·주민의 교육복지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일반자치외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년이며, 위원은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3명, 전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외부위원 18명이다. 외부위원 위촉을 위한 공개모집은 오는 29일부터 14개 시·군의 인구 구

성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선정한다. 이에 따른 지역별 공개모집 인원은 전주 3명, 익산 2명, 군산 2명,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진안무주장수 각각 1명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민관협력위원회 의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거버넌스 도입을 준비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은 최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2020년도 더불어 함께하는 해양체험 수련교실'을 개최했다.

### 부안교육지원청, 해양체험 수련교실 개최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은 최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2020년도 더불어 함께하는 해양체험 수련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련교실은 부안교육지원청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관내 6개 중학교에서 약 140명이 참여했다. 정찬호 교육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해양체험 활동이 자연을 이해하고 개척 능력을 기르며, 또래 친구와의 건

강한 만남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체험 프로그램은 3가지 영역으로 진행됐다. 해상안전, 재난안전 교육 등으로 이뤄진 위기대처영역, 환경보호활동과 임교 및 수료식 등의 공동체 의식 영역 그리고 해변 산책 및 아침수련활동을 포함한 심신단련영역이 그것이다. /정은성 기자

### 군산상업고-전주기전대 협약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군산상업고등학교(교장 김태현)는 지난 24일 전주비전대학(총장 조희천)과 상호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 기관 실무자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1:1 멘토-멘티제 운영으로 향후 군부사관 고졸 취업자를 배출해 교육발전 및 혁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두 학교는 성과공유, 1:1 멘토-멘티제를 운영해 학생들과의 교육 연계성 향상 학과관련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상업고등학교는 부사관과(2021년 신설), 창업경영과(2020년 신설)를 신설해 전주비전대학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총장 홍순직)은 24일 본교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LINC+사업 아이디어경진대회를 개최, 전시된 작품을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의 작품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있다.

### “창의·융복합 우수작 특허 출원”

#### 전주비전대 LINC+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

전주비전대학(총장 홍순직)은 지난 24일 본교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LINC+사업 아이디어경진대회'를 개최, 전시된 작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대면으로 창의융합 작품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캡스톤디자인(완성된 작품으로 심사)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전 '작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평가 중심'의 1차 경진대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스마트폰 연동형 IoT 우산' 등이 다.

이날 열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전기과 기계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등 12개 학과 437명의 학생이 32개 산업체와 협력해 51개 작품(시안)을 전시했다. 또 학과 교수와 산업체,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를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출품된 작품 아이디어 시안을 심사했다.

전병관 산학협력프로젝트팀장은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회에 출품된 작품아이디어 형사진은 창의적 문제해결 접근 방식과 융·복합적 기술협력능력을 보여준 작품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우리대학이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기반한 창의·융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성과물은 특허 출원 취·창업과 산학협력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성공-핵심역량개발을 이끌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청년TLO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불참, 복무점검 실시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홈페이지 채용공지를 확인하거나 산학협력단 담당부서(☎063-270-445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한편 전주비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이번 1차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작품 아이디어 시안을 선정해 특허출원하고, 2차 경진대회 심사를 마치고 10월로 예정된 2020년 졸업작품전(비전엑스포)에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우수 청년 취·창업 실무기반 쌓는다

### 만 34세 미만 이공계 학·석사 청년 TLO 연구원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을 모집해 대학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취·창업을 위한 실무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34억 원 규모의 청년 TLO 육성사업'을 통해서다. 이에따라 전북대는 올 하반기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TLO 연구원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학을 졸업한 만34세 미만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6개월간 고용계약을 체결 대학 우수 기술의 민간 이점을 돕고 관련 분야 취·창업을 지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선정된 청년 TLO 연구원은 전북대에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 소개 자료 작성, 기업 및 기술 동향 조사, 실험실

연구자 지원 및 협력, 실험실 보유 기반 창업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쌓게 된다. 모집대상은 전북대 미취업 이공계(공대, 농생대, 자연대, 환생대) 학·석사 졸업생 또는 올 8월 졸업예정자(만 34세 미만)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다. 합격자는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6개월간)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채용돼 지식재산·기술사업화 교육 지원을 받아 대학이 보유한

실험실 기술이나 노하우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기술동향조사, 기술마케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단 2018년 및 2019년, 2020년 1학기 청년 TLO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소속 실험실 및 지도교수가 수행중인 연구과제 등에서 인건비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